

[ 시티 & 피쳐 ]

단속 강화해도 서해안 몰려드는 中 어선 왜?

용산택지개발지구 등 시외곽 지역 9곳

광주시, 2010년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中 어장 오염...신안 황금어장 '눈독'

난류영향 조기·병어 등 어군 확산해역 이동 서해안 EEZ 확대 이후 불법조업 계속 늘어

잡아도 잡아도 몰려드는 중국 어선 때문에 우리의 황금어장이 위협 받고 있다.

중국 해역이 오염·해류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든 반면 우리 해역은 난류의 영향으로 조기·병어·갈치·홍어 등의 대규모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어선들의 우리 어장 약탈은 급증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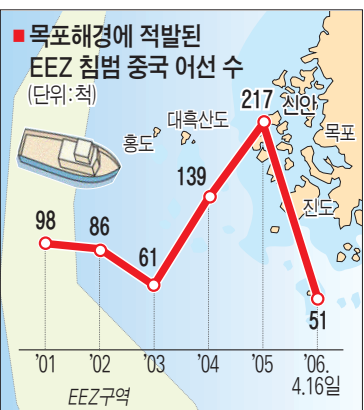
특히 16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이하 EEZ)내에서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금지되는 '금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끝없이 이어지는 중국어선=우리나라 서남해안 영해와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 수는 지난 2001년 98척, 2002년 86척, 2003년 61척으로 2003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4년 들어 139척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217척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16일 현재 51척의 중국어선이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16척)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목포 해경을 비롯한 국내 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1천31척으로, 처음으로 1년 새 1천 척을 넘어섰



목포해경에 적발된 EEZ 침범 중국어선 수 (단위:척)

◆불법 조업 왜 늘어나나=중국어선들의 EEZ 침범이 급증하고 이유는 우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6월30일 발효된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작년 7월1일부터 과도수역 1만2천188km이 새로 우리 측 EEZ에 편입됐다.

여기에 매년 4월16일~10월15일(쌍골이 저인망 어선)과 1월1일~2월28일, 6월16일~8월31일(유자망 어선)까지 중국어선의 우리측 EEZ 내 조업이 금지되는 금어기(禁漁期)에 들어감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고기를 잡기 위해 우리측 EEZ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또 신안군 확산도, 흥도, 가거도 일대 서남해안의 경우 난류 덕분에 대규모 어장이 형성돼, 중국어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성휴기자 lsh@kwangju.co.kr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 확산도 근해에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몰들어 중국어선들의 우리 측 영해 침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포=이성휴기자 lsh@kwangju.co.kr

담보금 2배로 올리고 처벌 수위 높여도 기승

해경은 지난 3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하 EEZ) 침범 외국어선에 대한 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EEZ침범 외국어선의 선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강화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담보금 상향=담보금 제도는 외국 선박이 상대국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경우 석방을 조건으로 담보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 담보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해경은 중국어선들의 EEZ내 불법 조업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담보금 상향 조정을 추진해 왔다. 1.5~2배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담보금 부과기준을 현행 80t 기준으로 2단계로 하던 것을 50t 미만, 50~80t, 80t 이상 등 3단계로 세분화해 담보금을 부과기로 했다. 목포해경은

2001년 16억원, 2002년 21억1천만원, 2003년 12억6천만원, 2004년 14억원, 2005년 17억1천만원, 올해는 5억7천7천만원의 담보금을 EEZ침범 중국어선에 부과했다. 5년 동안 총 86억8천여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돼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

◆처벌도 강화=불법조업에 대한 선원들의 처벌도 강화됐다. 2004년 2월부터 선장뿐 아니라 기관사, 항해사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담보금을 내지 못해 구속된 중국 선원들은 2001년 63명, 2002년 40명, 2003년 27명, 2004년 54명, 2005년 15명, 올 현재 6명으로 205명에 달하고 있다.

목포해경 김수현 서장은 "해양생물자원 및 국내 어선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성휴기자 lsh@kwangju.co.kr

광주시는 16일 2010년까지 시 외곽 9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회차지 부족에 따른 간선도로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157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외곽 9곳을 선정, 3단계로 나눠 2010년까지 회차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73여개의 예산을 들여 장동·월남·풍암·송산·일곡동 등 5개소(1만3521평)에 회차지를 조성해 42개노선 690대의 시내버스가 활용하고 있다. 첨단지구 공영차고지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무지구 공영차고지는 서구 세하동 385-1번지 일원을 공영차고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오는 5월 설계용역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15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현재 시내버스의 대로변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봉선지구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임시 회차지를 탐색하고 2009년까지 조성될 용산택지개발지구내에 시내버스 공용 차고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knews@kwangju.co.kr

광주농협, 도시민·농업인 '한마음 축제'

광주농협(조합장 김기호)이 15일 광주자연과학고에서 도시민과 농업인과의 상생합을 다짐하는 대규모 '한마음 축제'를 가졌다. 2천7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축제는 의정행사를 시작으로 명랑운동회, 한국·중국 합동서커스공연, 농업인 조합원과 소비자대표의 '농촌사랑' 결의, 행운권 추첨, 풍물대 놀이 등으

로 이어졌다. 김기호 조합장은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조합원에게는 도시민의 고마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대축제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사랑 1사1촌 운동 등을 통해 도농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내' (Living News) and '신고' (Reports).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such as '교통안내' (Traffic News) and '상담' (Talk).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25 Years of Customer Love!) for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The ad features a large central graphic with the number '25' and text promoting 25 years of service, a large customer base, and a commitment to service. It also lists amenities like a swimming pool, spa, and various dining options.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such as location, size,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t. The listings are organized into several column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real estate agency or service.